실속 재테크

그룹주 펀드 투자

탄탄한 수익구조…코스피 보다 낫네

성장성 갖춘 대기업에 투자…펀드 변동성은 높아

증시 불안이 가중되면서 펀드환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룹주 펀드가 꾸준히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그룹주 펀드 수익률이 코스피나 코스피200의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등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삼성, SK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계열사를 한데 묶어 투자하는 그룹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시가 총액 상위의 우량 기업이거나 업종 대표주라서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그룹주 펀드의 투자대상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선택폭 다양한 그룹주 = 삼성그룹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2(주식)'처럼 특정 그룹만 대상으로 하거나 '신한BNP3대그룹주플러스'처럼 삼성, LG, 현대그룹 등 여러 그룹에 분산 투자하는 형태가 있다. SK그룹주에 녹색산업 관련 주식을 더한 'NH-CA SK그룹녹색에너지증권'처럼 그룹주에 특정 테마주를 더한 상품도 있다.

올 들어 주요 그룹주 펀드의 성과는 대부분 코스피를 상회한다. 'KB한국대표그룹주(주식)A'의 경우 6개월 수익률이 13.70%이며 1년 수익률이 17.29%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에너지 등 세계 시장 지배력을 갖췄거나 그룹 내 시너지를 통해 시장점유율 및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을 주로 편입했다.

그룹주 펀드의 인기를 바탕으로 주요 그룹주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들도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 '대신GIANT현대차그룹' 'KStar 5대 그룹주'는 각각 1년 수익률 42.87%, 15.86%를 기록 중이다.

◇투자 대상기업과 비중 따져야= 그룹주 펀드에 투자할 때는 우선 투자대상의 범위와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 특정 그룹에만 투자하는 순수 그룹주 펀드가 있는 반면 여러 그룹 또는 우량주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그룹 비중이 100%인 경우 그룹 주가가 좋을 때 높은 수익률 추구할 수 있지만 펀드 변동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 가치가 있는 그룹인지도 살펴야 한다. 그룹주 펀드에 투자할 경우 제한된 종목에 집중하는 만큼 특정 업종의 급락으로 수익률이 부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한다. 투자대상 그룹의 기업 지배구조도 점검사항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은 "그룹주 펀드의 경우 그룹주 펀드에 투자할 경우 제한된 종목에 투자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업종의 급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요 그룹주펀드

펀 드	테 마	운용사
KB한국대표그룹주 자 클래스 A	5대그룹주	KB운용
한국투자현대차그룹리딩플러스 1(A)	현대차그룹주	한국운용
한국삼성그룹리딩플러스 1(C)	삼성그룹주	한국운용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 1 A	삼성그룹주	동양운용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 2(A)	삼성그룹주	한국운용
한국투자삼성그룹 1(C)	삼성그룹주	한국운용
와이즈히어로 - 영웅시대 1	현대그룹주	와이즈에셋운용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 1(C)	삼성그룹주	한국운용
한국투자골드플랜삼성그룹연금 자 1(C)	삼성그룹주	한국운용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그룹 1(A)	15대그룹주	삼성운용
한국투자삼성그룹 자 2	삼성그룹주	한국운용
한국투자LG그룹플러스 1(A)	LG그룹주	한국운용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 1종류A	5대그룹주	미래에셋자산

"추석선물 미리 구입하세요"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하 1층 식품매장에 '추석 선물 사전 예약 코너'을 열고 과일, 와인, 녹차 등 인기 추석선물을 선보였다. 예약코너에서 추석선물을 장만할 경우 5~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돈 없으니 명절이 더 힘들어요"

대한상의 설문, 저소득일수록 추석경기 "나빠졌다"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올해 추석경기가 지난해보다 못한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수도권에 사는 성인 6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과반인 57.1%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추석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작년 수준과 비슷하다는 답은 38.4%였고 나아졌다는 응답자는 4.5%에 그쳤다.

소득별로 보면 작년보다 추석경기가 악화했다는 응답 비율은 월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가 75.6%였고 100만~200만원이 60.4%, 200만~300만원이 59.0%, 300만~500만원이 54.7%로 집계됐다.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50.7%로 100만원 이하 응답자보다 추석경기가 나빠졌다는 비율이 25%포인트 정도 낮았다.

추석 선물 비용으로는 3만~5만원을 생각한다는 답변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만원 미만 25.3%, 5만~10만원 24.7%, 10만~15만원이 6.8%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때는 추석 선물 비용으로 3만원 미만을 지적한 사람이 가장 많았었다.

선물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는 '선물할 대상의 기호'를 꼽은 사람이 36.6%로 가장 많았고, 구매 장소로는 백화점(14.2%)보다 대형마트(64.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역 주식 거래량·대금 모두 감소

경기 둔화 우려감 확산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8월 광주·전남지역 투자자 주식거래 실적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은 전달의 5억578만주에서 4억8186만주로 4.73%(2391만주) 감소했다.

거래대금은 2조9942억원으로 전달의 3조2101억원보다 6.73%(2159억원) 감소했으며 순매수량은 736만주로 34만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비중은 각각 2.54%와 2.06%로 전달(2.52%, 2.04%)보다 소폭 증가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양옵틱스, 프라임엔터, 하이닉스, 일경, 대우차판매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의 거래량 상위 종목은 대국, M&M, CT&T, 파루, 에이프로테크놀로지 등의 순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카드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 이어 서점, 정육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부가가치 면제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작년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낮췄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상한선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연합뉴스

우리銀 신입행원 300명 채용

20% 인턴십·30% 지방출신

우리은행은 2일 하반기에 신입행원 3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난 규모로, 채용인원 300명 가운데 20%(60명)는 올해 실시한 청년 인턴십 수료자를 대상으로 뽑을 예정이다. 또 지방 영업 활성화를 위해 채용인원의 약 30%(90명)는 지방 출신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원서는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www.wooribank.com)으로 접수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중순부터 8주간 연수를 받은 뒤 내년 1월 중순 정식 임용된다.

올해는 면접 전형을 기존의 실무자 면접→1박2일 합숙면접(심층면접)→임원면접 3단계에서 1박2일 합숙면접→임원면접 2단계로 축소한 점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15개 농·축산물 가격 집중 감시"

제수용품 공급량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무, 배추 등 15개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가격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제수용품에 대해선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늘려 물가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일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15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개 품목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이다.

특히 무, 배추에 대해선 농협이 계약재배 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중심으로 1일 출하량을 기존 550t에서 9월부터는 660t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과 역시 1일 출하량을 1일 170t에서 370t으로 늘리고, 배는 340t에서 105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등어 710t, 냉동오징어 107t, 마른오징어 40t 등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수산물 857t도 3일부터 시중에 출하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2502곳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나 특판행사장을 설치해 물가안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통계의 날' 기념행사

호남 유공자 훈·포장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대형)은 2일 대강당에서 제16회 통계의 날(1일)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호남통계청은 통계 유공자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고, 통계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한 토론대회도 열었다. 또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12월 진행되는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을 다짐하는 행사도 실시했다.

이밖에 통계의 날에 맞춰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m.kostat.go.kr)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이은미기자 emlee@